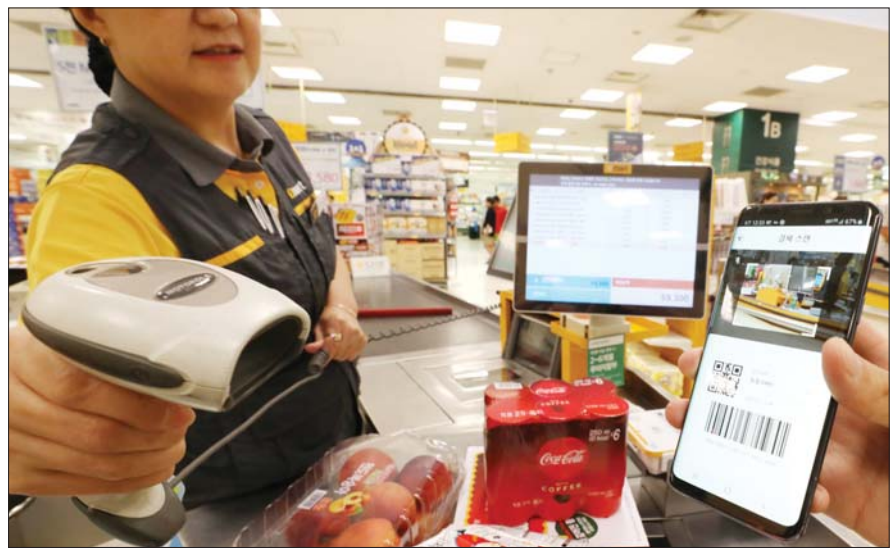
광주·전남 제로페이 가맹점 9200개… 결제는 '글쎄'

가맹점 1곳당 10개월간 2만원
결제금액 1억8500만원에 불과
전국 평균 10만원 결제한 셈


지난달 26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고객이 제로페이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제로페이(모바일직불 결제) 가맹점들의 결제금액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도입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광주·전남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9200개에 달했지만, 결제 금액은 1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10개월 동안 광주·전남 가맹점 수 1곳당 2만원가량 결제한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29만1천여개고, 결제 금액은 317억4000만원이다.

전국 가맹점 수 1곳당 10만900원가량 결제한 셈이다.

광주·전남 가맹점들의 결제 금액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극히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갑주 전남소상공인협회 대표는 최근 여수를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로페이가 실제로 가맹점은 많은데 사용자가 적다"며 "제로페이도 사용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로페이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며 "광주시민 등 도시민들이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중계자가 없어 결제 사업자와 참여 은행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앱을 설치한 뒤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수 있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거장 작품 한곳에… '아트광주19' 개막

〈19일〉

13개국 참가 6000여점 작품
남도수묵특별전과 강연 진행

전 세계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호남 전통미학인 남종문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19)가 열린다.

16일 아트광주19 사무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VIP 프리뷰와 함께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 행사가 개막한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아트광주19에는 13개국에서 갤러리 91곳이 참여해 6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남도수묵특별전과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아트광주19에서는 팝아트의 제왕이라 불리는 앤디 워홀,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의 작품 값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슈퍼스타들이 탐내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카우스, 요시모토 나라, 쿠사마 야요이, 피카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세계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배, 전광영, 김현식, 이우환, 장욱진, 강요배, 김구림 등 한국 작가의 작품과 메이저 갤러리 소속으로 참여하는 광주지역 출신의 곽수봉, 이이남 등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별전으로 남종문인화의 태동과 맥을 이어온 빛고을 광주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로 '남도수묵전'을 준비했다.

개인 소장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호남 전통미학의 미술자원을 공유하는 장으로 소치 허련 선생부터 의재 허백련 선생까지 이어지는 묵향을 느낄 수 있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조인호 대표는 "예향 화맥의 근간을 이루어 온 호남 남화의 대가 작품을 장터 열기 치열한 신상들 속에 옮겨 놓는 건 모험일 수 있으나 개성과 독자적 예술탐구가 일반화된 다원주의 시대 미술장터에서 남도수묵 특별전이 지역미술의 깊이와 차별성을 전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사 4일간의 여정에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곳곳에 9개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미국작가 데이비드 장의 작품은 관객 참여형인 대형 인터렉티브 작품으로 아트광주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현대예술 감상의 체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향(아트디렉터), 이지현(독립기획자), 성유진(작가), 권성아(ACC 전시팀장), 최순임(작가), 이창용(미술사강사) 등 6명은 강연자로 나서 생생한 예술현장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눈다.

/광주=차정준 기자

관광으로 하나된 부울경 동남권관광본부 출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광역관광상품 개발·사업 발굴
국내 관광 시장 수도권 집중화 대응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모습.

부산시는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16일 영도구 대교동1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2층에서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산·울산·경남도의 부단체장과 시·도의회 상임위원장, 관광협회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해 현판식 등을 한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국내 관광 시장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권 광역관광대응체계 구축 및 동남권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에서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을 공동 협약과제로 채택한 이후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협의해 동남권관광협의회 산하기관으로 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부산·울산·경남의 직원들을 파견해 운영하고, 2년마다 시·도별로 돌아가며 간사를 맡게된다.

▲동남권관광벨트조성사업용역(가칭) ▲동남권광역관광상품 개발 ▲관광개발 국비 사업 발굴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남권관광본부 설립은 '동남권상생협의회' 공동협약 과제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동남권관광벨트조성사업용역(가칭)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비사업 발굴 등 동남권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현안 챙기기나서

현안 사업 수시 점검토록 지시
부서장 중심 핵심사업 행정력 집중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16일 긴급간부회의에서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안성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시정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최문환 부시장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성시 각종 현안사업을 수시 점검하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핵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자 가치"라며 "위반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우석제 시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부시장 최문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경기)=이보헌 기자 bhlee7777@

광주시

"차없는날 함께 걸어요"

광주시는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시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 교통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기관에서 '함께 걸어요'(Walk together)를 주제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일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 5개 지역에서 매일 퇴근시간대에 '편하게 걷자! 안전하게 자전거 타자!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티켓, 티셔츠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수제작물(UCC)를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19일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지정해 청사 내 승용차 출입을 통제한다. /광주=차정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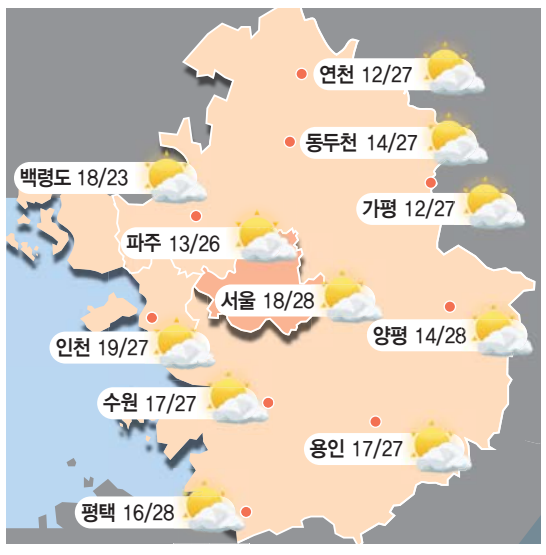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5 | 해짐 / 18:38

9월 17일 (火)
음력 : 8월 19일

수도권 날씨
2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